

## 선택 넓게, 혜택 크게... 명절 맞춤쇼핑

### 롯데홈쇼핑

12일까지 설 특집전 '마구드림 페스타' 할인·적립 대폭 확대... 전용쿠폰까지

롯데홈쇼핑이 경기 불황과 고물가 속 합리적인 명절 쇼핑을 돕기 위해 설 특집전 '마구드림 페스타'를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의 체감 혜택을 높이기 위해 전 카테고리 걸쳐 할인과 적립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매일 10만원 이상 구매 시 선택형 사은품을 증정하고 매일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대량 주문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적립금을,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는 전용 쿠폰을 지급한다.

TV 방송은 명절 시즌 수요를 반영해 설 특집과 연휴 기간 동안 식품 편성을 평소 대비 50% 확대해 운영한다. 10일부터는 명절 인기 상품인 '진도산 전복'을 비롯해

'정성곳간 소갈비찜', '롯데호텔 LA갈비' 등을 '최유라쇼'를 통해 선보인다. 이어 11일에는 '김나운의 라라쇼'에서 '김나운더 키친 LA갈비'를, 12일 '빅마마SHOW'에서는 '빅마마 갈비찜'을 합리적인 구성으로 준비한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건강식품과 프리미엄 식품도 다양하게 내세운다. 대표 프로그램 '요즘쇼핑 유리네'는 11일과 18일 건강식품 특집 방송을 통해 지난 방송 매진을 기록한 '여에스터 국민영양제'와 '닥터린파비플로라X알파CD', '정관장홍삼톤샷' 등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바실리사 로열젤리 감로꿀', '메리비 마누카 허니 콕' 등 프리미엄 식품 구성을 확대해 선보일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는 상품 정보 탐색 시간이 길어지는 점을 고려해 가전, 여행, 명품 등 고관여 상품을 집중 편성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 삼성, LG, 로보락 등 주요 가전 브랜드 인기 상품을 엄선해 공개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롯데홈쇼핑이 설을 맞아 특집전 '마구드림 페스타'를 준비했다.

## 정성 담은 피부케어에 K-컬처 감성까지

### LG생활건강

브랜드별 대표제품으로 세트 구성 자개 표현한 명절 한정판 생활용품

LG생활건강은 브랜드 대표 제품을 중심으로 화장품 세트를 구성했다.

클린뷰티브랜드 '더페이스샵'에서 피부 보습과 진정을 위한 '오토 판테놀 보습장벽 크림 기획세트'를 내놓는다. 본품(60ml)에 증정품(31ml)을 포함해 넉넉한 용량과 밝은 색상을 적용한 제품 디자인이 선물 가치를 높인다.

더페이스샵은 원물 효능에 중점을 둔 스킨케어 브랜드로, 오토 판테놀 보습장벽 크림에는 오토 추출물 성분과 고순도 판테놀 5.5%를 복합 처방했다. 피부 장벽·보습·광채 개선 효과를 갖춰 거칠고 건조해진 피부는 물론 푸석하고 예민해진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해 준다.

또 부드럽게 발리고 매끈하게 밀착되는 제형으로 설계돼 취침 중 집중관리 마스크로 활용 가능하다. 하룻밤 사이 12시간 피부 재생을 경험할 수 있다.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는 피부 탄력을 강화하는 '에이지 넥다운 배리어 2종 세트'를 선보인다. 에이지 넥다운 배리어 '토너'와 에이지 넥다운 배리어 '에멀전'을 정품으로 담고 에센스, 크림, 아이세럼 등을 소용량으로 더했다. 빌리프만의 허브 전문 기술을 집약한 향노화 제품군을 종합했다.

LG생활건강은 설 명절에만 만날 수 있



더페이스샵 '오토 판테놀 보습장벽 크림 기획세트'



'K자개 핸드케어 선물세트'

는 생활용품 세트도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K까치와 호랑이 프리미엄 세트'에는 소나무 배경과 조화를 이룬 까치와 호랑이를 그려 넣었다. 불운은 멀리하고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한다. 아울러 샴푸, 바디워시, 치약, 비누 등을 한 데 담아 실용적이다.

'K자개 핸드케어 선물세트'는 한국 전통 공예의 정수인 자개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고급스런 보라색 포장에 매력적이며 핸드워시와 비누로 구성해 일상 속 위생을 돕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실속 늘리고, 취향 살리고... 라인업 강화

### 롯데마트

가성비 선물세트 물량 30% 확대 차별화된 프리미엄·이색상품 강화

롯데마트가 오는 16일까지 전점에서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고물가로 인한 실속형 소비와 프리미엄 수요가 공존하는 소비 양극화 트렌드를 반영해, 5만원 미만 가성비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 설 대비 30% 확대해 선보인다. 실제 이번 사전예약기간 5만원 미만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과일 세트는 전체 물량의 절반을 가성비 상품으로 채우고 종류도 2배 늘렸다. 사과, 배, 애플망고 등을 담은 '정성담은 혼합과일' 세트와 '깨끗이 씻어 나온 GAP 사과', '제스프리 제주 골드키위' 등을 모두 3만9900원에 준비했다. 수산 부문에서는 롯데마트 단독 상품인 '대천 곱창김 선물세트' 물량을 20% 늘려 2만9900원에 내세운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1+1' 혜택으로 가격 부담을 낮췄다. '청정원 L3호'와 '청정원 L5호'는 교차 구매가 가능하며 세트당 2만5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축산 세트 역시 10만 원 미만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 다양하다. 1등급 한우 국거리와 불고기



롯데마트가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나선다.

로 구성된 '한우 정육세트 2호'는 9만9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차별화된 프리미엄 및 이색 상품도 강화했다. 인기 셰프 최강욱과 협업한 '최강욱의 나야 와규 야끼니꾸 세트'를 14만9000원에, 투썸 최고 등급 한우인 '마블나인 구이혼합세트'를 69만9000원에 선보인다.

롯데마트·슈퍼심영준관촉마케팅팀장은 "명절 선물 준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성비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차별화 상품을 강화했다"며 "고객들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합리적인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 “애정·감사·풍요... 소중한 마음 전해요”

### 롯데칠성음료

델몬트 대표제품 혼합 총 7종 선택 선물 패키지에 한국 전통의 멋 담아

롯데칠성음료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델몬트주스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이번 선물세트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 담은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정통 주스의 대명사 델몬트의 대표 제품을 혼합한 총 7종의 구성을 선보여 소비자 선택의 폭과 만족감을 높일 예정이다.

델몬트 1.5L 페트병 선물세트는 '애정(愛情)', '감사(感謝)' '풍요(豊饒)'라는 한자 속에 과일 이미지를 넣은 한국 전통의

멋을 담은 패키지로 꾸며졌다. '제주감귤·매실·포도' 4본입의 애정 세트, '오렌지·포도·망고' 3본입의 감사 세트, '토마토·망고' 3본입의 풍요 세트 '제주감귤·매실·잔치집식혜' 3본입으로 구성된 우리 가족 선물세트를 포함해 총 4종으로 구성됐다.

델몬트 소병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과일 주스를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180ml 소병 제품을 12개씩 담았다. '오렌지·포도 세트', '오렌지·토마토 세트', '감귤·포도·토마토 세트'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을 담은 '델몬트주스 선물세트'와 함께 더욱 뜻깊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하고 다양한 델몬트주스를 꾸준히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맛과 품질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델몬트주스 선물세트